

1988년 10월 5일

 해외당뇨뉴스

새 "당뇨병치료물질" 개발

“천연약초서 추출……부작용 전혀 없어”

EBMR사등 공동발표

캐나다 칼가리대 의대 당뇨연구센터와 개발 파트너인 EBMR사는 천연약초에서 새로운 당뇨병 치료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공동 발표했다.

이에 앞서 EBMR사는 이미 'P-700'을 이용한 건강차 '엘레오틴'을 지난 4월부터 북미지역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으며, 당뇨병치료 의약품 개발을 추진중이다.

공동개발자인 EBMR사는 캐나다 밴쿠버 소재의 교포기업인 이스트우드사(김영수 사장)와 계열사로 당뇨병과 암치료제를 전문적으로 개발중인 신약개발 전문회사다.

'P-700'으로 명명된 이 당뇨병 치료물질은 천연약초에서 추출돼 기존 당뇨병 치료제에 비해 부작용이나 내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칼가리대 학과 EBMR사는 밝혔다.

EBMR사는 “임상실험 결과 'P-700'은 혈당을 조절하는 기존 당뇨병치료제 기능외에도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을 강화하고, 근육 조직에서 인슐린을 잡아채는 수용체를 재생하는 효능까지 있다”고 밝혔다.

EBMR사는 “성인병의 대명사로 난치병으로 알려진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 셈”이라고 설명했다. 하지만 이런 신약이 개발돼 당뇨환자에게 보급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략 7~10년이 걸린다고 한다.